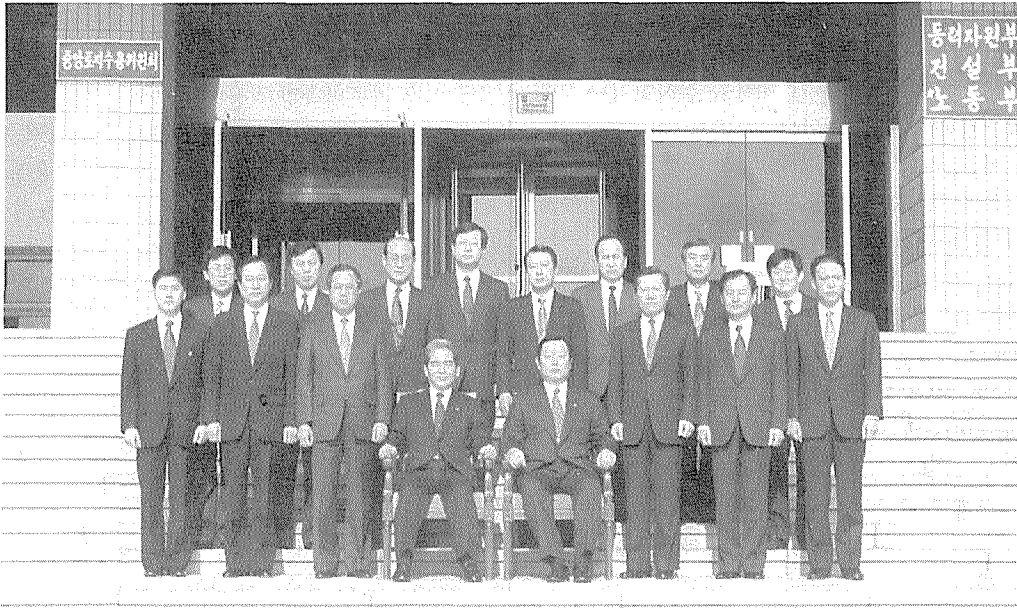


동력자원부 15년 역사 마감하다.



◇ 分家 15년만에 다시 상공부에 통합되는 동력자원부의 陳稔장관 이임식 직후 청사앞 계단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의 기념촬영을 가진 모습

새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공부에 흡수 통합된 동력자원부가 지난 2월 26일 陳稔장관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15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동자부 폐지안은 민자당의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되어 지난 2월 12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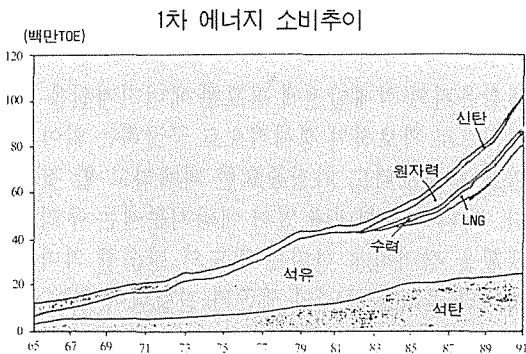
짓고 임시국회에 상정, 2월 20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표결통과시키고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 절차를 마쳤다.

동자부는 지난 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공급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자 상공부에서 동력자원국, 전기국, 광무국이 분리돼 에너지 자원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난 78년 1월

1일 정식 발족됐다. 동자부는 그동안 발족의 계기가 된 제1차 석유위기의 여파와 발족후 1년만에 발발한 제2차 석유위기의 격동속에서 소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공급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도 크게 변모했다.

동자부 발족 당시 69.3%이던 에너지 해외수입의존도는 지난해 93.7%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94.8%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1978년에 3천8백만TOE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총에너지소비량은 1992년에 1억1천5백만 TOE로 증가했고, 1인당 총에너지소비량도 1978년의 1.03TOE에서 1991년에는 2.39TOE로 2.3배가 늘어났다.



또 석유소비비는 1978년의 1억6천3백만배럴에서 지난해에는 5억1천1백만배럴로 약 3.2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제시설능력도 1978년의 58만B/D에서 현재는 1백67만5천B/D로 약 2.9배가 확대되었다.

동자부는 발족 이래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 발족 이듬해인 1979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 부문별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시책을 추진해온 것을 비롯, 태양열 풍력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추진해왔다. 이밖에도 발전능력확충과 석유정제능력확충을 비롯, LNG 배관망, 전국송유관 건설, 집단에너지보급 등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절약을 위해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등 모두 25개의 법을 관장해왔다.

또 외국과의 자원협력을 위해 濠洲, 인도네시아, 러시

아, 몽골, 필리핀등 5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美國, 日本, 캐나다등 3개국과 에너지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동자부는 陳稔장관을 포함, 11명의 장관과 7명의 차관을 거쳤다. 장관의 평균재임기간은 1년 4개월. 역대 최장수장관은 26개월 22일간 재임한 7대 崔東奎장관이었으며, 최단명장관은 3대 柳陽洙장관으로 3개월 10일간 재직했다. 6대 徐相喆장관은 당시 全斗煥대통령의 버마순방때 북한의 아웅산묘지테러로 순직했다.

동자부직제 변천을 보면, 1978년 출범 초기 1실5국17개과 2백75명 정원으로 출발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기구와 인원이 확대되어 현재는 2실4국27개과와 7개 담당관에 모두 4백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역대동자부장관

초 대	張 禮 準	78. 1~79. 12
2 대	梁 潤 世	79. 12~80. 5
3 대	柳 陽 洙	80. 5~80. 9
4 대	朴 鳳 煥	80. 9~82. 1
5 대	李 宣 基	82. 1~82. 6
6 대	徐 相 喆	82. 6~83. 10
7 대	崔 東 奎	83. 10~86. 1
8 대	崔 昌 洛	86. 1~88. 2
9 대	李 鳳 瑞	88. 2~90. 3
10 대	李 禧 逸	90. 3~91. 5
11 대	陳 稔	91. 5~93. 2

한편 동자부의 초창기살림은 발족 당시인 1978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1일까지 을지로 덕수빌딩에서 1년 8개월, 통의동 코오롱빌딩에서 약 6년 4개월 등 모두 8년 2개월을 더부살이한 끝에 현 과천 제2정부청사로 합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동자부가 관장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기관을 보면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원자력문화재단등이 있으며, 이밖에 5대 정유사를 위시해 석유협회 등이 있다.

지난 70년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설립됐던 동자부의 기능은 이제 시대변천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상공자원부로 넘어갔다. 결국 15년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셈이다. ♣